

### 3월 수행일기

부처님의 법(法)을 만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뜨린 겨자 씨가 땅에 꽂아 놓은 바늘에 꽂히는 격이라 하였는가? 나 역시 지금껏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금전을 허비하며 법을 찾아 헤매었는가? 책을 통하여 고승 대덕들의 법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리산으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인천으로, 대구로, 거창으로, 영주로, 영천으로, 예산으로, 부산으로, 광주로, 양산으로, 제주도로 찾아가 보기를 수십 번.



신익찬(申) 제일투신 준법감시인

그 뿐인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가 수행자들 중에도 혹시 법을 통한 분이 있을까 하여 40년 동안 단전호흡(丹田呼吸)을 하였다는 분, 13일 동안 한숨 자지 않고 염불삼매(念佛三昧)에 드셨다는 분, 40년을 화두선(話頭禪)으로 참선하신 분, 18년을 법과 한 가지 반찬만으로 하

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생사(生死)를 겪고 부처님께 가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무던히도 법을 찾아 헤매었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수행에 대한 핵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언가 빠져버린 듯 허전한만이 가슴을 에워싸는 세월이었다. 그러던 내가 작년 11월 미국에서 은 인공지능 연구의 선

## 참다운 염불은 자력·타력 구족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

이같은 표어로 생활속의 염불수행을 강조해온 만일염불결사회(萬日念佛結社) 회장(회장 주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의 ‘향천선원’,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향천선원(원장 유혜림)은 선원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참선보다는 염불 수행 위주의 도십 포교당이다.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정기법회가 열리기전, 향천선원의 분위기는 자녀와 함께 온 부부들이 모여앉아 서로의 수행담과 가정사를 묻는 오붓한 가족법회와도 같았다. ‘염불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법회가 꾸러졌다’는 게 이자광(66·여의도동) 신도회장의 말이다.

화기에애한 차담 시간이 끝나고 봉선사 정인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삼귀의례와 우리말 천수경 독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목탁에 맞춰 108배와 예주문 독송을 함께 하는 108 참회가 끝나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 정진이 1시간 가량 진행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70대 할아버지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부처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는 청명(靑明)염불 소리가 퍼져나간다. <정토삼부경>이나 아미타불을 쓰고 그리는 ‘사경(寫經)염불’, 부처님의 공덕이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관상(觀想)염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생각하는 ‘법신(法身)염불’ 등 다양한 염불법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이런 ‘청명염불’이다. 청명염불에 의해 염불행자는 마음이 정화되며, 염불 집중이 깊어짐에 따라 ‘관불(觀佛)삼매’의

세계에 들어서면 비로소 아미타불이 자성타타(自性彌陀)임을 깨닫게 되며, 정토왕생이라는 목적도 실현 가능해진다.

향천선원 회주 보광 스님은 만일염불결사 회규(淸規)에서 “우리 염불행자들은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실재 하심을 믿으며, 반주삼매경(般若三昧經)과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가르침을 따라 염불 수행함으로써 현재에는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해 가정과 사회, 국가를 정화시키고 내세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깨달음을 이



▶매주 금요일 저녁 ‘자비수침’ 독송 및 염불정진으로 철야정진을 하고있는 만일염불결사회 향천선원. 만일염불결사회 회원들이 24일 일요일법회에서 ‘우리말 천수경’을 독송하고 있다.

### 마음청정, 이곳을 정토로 가꾸는 첩경

### 언제 어디서든 염불통한 일념으로

루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로부터 염불 수행을 권한 큰스님들은 법당에서는 물론 일할 때나 일 때에도 염불을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길을 걸을 때, 운전할 때, 공양을 할 때 등 언제 어디서라도 염불을 통한 일념에 들어 번뇌방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념에 이은 무념으로 염불삼매에 들어, 선과 닮았는 ‘염불선’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기복이 아닌 부처님의 근 본 가르침을 생각하며 염불에 입해아 타력과 자력신앙이 구비된 참다운 염

불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10월 27일 개원한 ‘향천선원’은 만일염불(2000년 6월 6일~2027년 10월 22일) 결사후 500

일마다 전국 각지에 염불원을 개원하겠다는 보광 스님의 원력에 따라 개설 첫 염불원이다. 일요일법회와 함께 매 주 금요일 ‘자비수침’ 독송 및 참선으로 철야정진을 할 정도로 열심이다. 현재 만일염불결사회(www.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향천선원’의 염불수행**

pureland.or.kr에서는 불자들에게 자신의 수행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염불달력을 나눠주고 있다. 정토사 = (031)723-9797, 향천선원 = (02)2254-3171  
김재경 기자 igkim@buddhania.com

### 추상적인 방편 법문에 실망

### “스스로 깨닫고, 보고, 판단해야”

루 1식만 고집하며 염불선(念佛禪)과 화두선(話頭禪)으로 수행하셨다는 분도 만나보았다. 심지어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근원통(耳根圓通)을 통한 즉각 깨달은 관음법문을 말해 준다는 베트남의 청하 이 무상사라는 분도 만나 보았고, 4년 여를 멀치 국룰도 들어 가지 않은 채식 병행하며 수행도 해보았다. 누구든 어디든 인연 있다 생각되면 꼭꼭 붙든다고 찾았다.

구자인 김사철 박사님과 연방족선원의 법주 스님을 만난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기쁨에 비견할 바가 아니었다. 몇 해 전,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에 대하여 책으로 접한 적은 있었으나 수행과의 인연이 닿지 않아 있던 차에, 이 분들을 통해 비로소 부처님 법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풍문이나 전설이나 소문뿐 아니라 종교적인 경전의 내용에도 이끌리지 마라. 믿음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 깨닫고, 보고, 파악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김사철 박사는 인간 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던 중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분은 내가 만났던 그 어느 선지식보다도 부처의 깨달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함축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법주스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정토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해주셨다. (계속)

### 수행 캘린더

- 정토수원원 깨달음의 장 = 경북 문경 정토수원원은 12월 4-8일 '깨달음의 장', 12월 25-29일 '나눔의 장' 수련회를 개최한다.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20명 선착순 모집. ☎054-571-6031
- 초기불경 '나까야 읽기' = 초기불경 '나까야 읽기'모임은 대담 첫 셋째 화요일 오후 7시 빠알리성전 협회에서 '쌍웃나 나까야'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빠알리 나까야는 부처님의 육성을 담은 사실상 유일한 경전군으로, 경전의 대부분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00년 안에 성립됐다. 부처님에 대한 생동하는 기억이 제자들과 민중들 속에 살아 있을 때였음을 보여주는 이 경전에는 <법구경>이나 <숫타니파타> 등도 속해 있다. ☎02-2631-1318
-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 =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만은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30여 스님

을 초청, 화엄산림 대법회를 연다. 교육원장 무비 스님(12월 6일), 포교원장 도영 스님(7일),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13일), 동국대 여경원장 월은스님(20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28, 29일) 등 대강객들이 모인 경전의 근본이 되는 화엄경의 화장장엄체계를 펼쳐 보인다. ☎051-382-7182
- 선무도 화랑수련회 =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은 12월 1일부터 3개월간(1주, 2주, 1개월과정)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선무도 화랑수련회를 연다. 수련내용은 인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초발심자경문, 부모은중경), 전통무용 및 다도 등으로 다양하다. 스님을 비롯한 사범 10명, 무용강사 4명, 다도 강사 2명이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054-745-0246
- 석불연구회 미안마 답사 = 한국 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후)는 12월 27일부터 10일간 미안마, 캄보디아, 태국의 석불문화 답사법회를 갖는다. 전문가의 해설로 소

승불교의 성지를 찾아가는 이번 답사에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02-760-5128
- 초심자 참선교실 = 부산 우곡선원(원장 우곡)은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10시 초심자를 위한 참선교실을 연다. ☎051-740-6288
- 위빠사나 초보자 수행 =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 타 스님, www.borisor.kr)은 12월 2-13일, 매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초보자수행을 지도한다. ☎02-517-2841

## 제3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우리도 부처님 같이...”

본 협회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주제로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불교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새로운 정보 및 기능을 습득하는 강습회에 함께 하시어 어린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일 시 : 불기 2547년 12월 7일(土) 오후 2시 ~ 8일(日) 오후 3시

2. 장 소 :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 02-413-6060

【교통편 안내】지 하 철 : 2호선 잠실역하차(4번출구) 도보 10분

### 3. 교육내용

강 의	비 고
올 불교학교는 Sing in Game으로...	김종현(본회 연구위원)
새로운 찬불동요로 겨울을 따뜻하게...	정유탁(풍경소리 작곡가)
도구제작 및 놀이체험 - 성물도 놀이	교육연수국
HIPHOP REC DANCE	이화웅(JJ DANCE COMPANY 단장)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김은미(종이접기 사범)
Thinking Game	이성훈(본회 교육연수국장)
전래놀이	이상호(놀이 연구가)

4. 참가비 : 일반 40,000원 / 회원 30,000원 / 군종 및 도서벽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대) 02-739-4967(본회 사무국) FAX. 02-738-7863

본회 카페 - http://cafe.daum.net/burec

※ 선착순 100명 모집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 2003학년도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 대학원 모집요강

1. 불교문화학부(모집정원 25명) : 정시 '나' 군  
- 불교학전공 · 불교문화전공 - 입학원서접수 : 2002년 12월 10일 ~ 13일

2. 대학원 불교학과

(1)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명	대학원명	개설전공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 밀교학, 응용불교학	00명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문화학	00명
	종학과	진각종학, 밀교학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02년 12월 2일(월) ~ 12월 7일(토) - 전형일시 : 2002년 12월 21일(토) 13:00

(3)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3. 불교지도자과정

(1) 지원자격 : 각 종단의 성직자, 각 신행단체(불교)의 간부 및 대표, 신행이 돈독한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성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3) 면접일시 : 2002년 12월 21일(토) 14:00

4. 장학특전 : 각 종단 성직자, 공무원(군인), 교직원, 불교단체간부, 불교언론인은 각종 장학혜택 (각 과정 공통)

5. 기타 : 입학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학부는 학부사무실 (054-760-1510)로, 대학원 · 지도자과정은 평생교육팀(☎054-760-1142, 15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찰, 강한 대학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780-8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번지  
Tel : 054)760-1515, 1142 Fax : 054)760-1135  
http://www.uiduk.ac.kr